

법의 권리보다 가족의 의무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권리이며, 이를 법원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곳 법이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과 방문권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비단 이혼 당사자인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때로는 당사자보다 더 흥분하여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조부모 방문권'이 그런 경우다.

한국인들의 경우, 할머니·할아버지를 애기할 때 친가나 외가나에 대한 호칭이 먼저 붙는다. 손주를 돌보다가 아이가 다치면, 외손주의 경우 "아이고, 이를 어찌. X씨네 찢줄 다치게 했다고 말 듣게 생겼네. 그래서 애 봐준 공은 없더니까" 하며 근심하시는 외할머니들을 흔히 본다. 게다가 한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의 이미지는 어느 며느리에게도 쉬운 존재는 아니다.

부권에 절대적으로 치우쳤던 과거 한국의 법 구조상, 한국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좌지우지하는 특권은 실제로 친할머니가 가지고 있어, '절대로 너에게 자식만은 못 준다'라는 으름장이 번번했던 시절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지금, 이곳 미국이라는 나라에까지 와서도 상담 중 흔히 듣는 질문이 "시댁은 다 미국에 있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이다.

캘리포니아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결함이 없을 경우 자녀 양육권은 물론 자녀 양육 및 성장에 따른 모든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다.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방문할 것인지 또한 얼마나 자주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 달려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자녀 양육에 따르는 제반 문제를 결정하는 권리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모의 권리이며, 이를 법원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곳 법이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A와 B는 두 살 난 딸을 데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B는 이혼 소송 중 자살했다. 양육권은 자동적으로 생존하는 엄마인 A가 갖게 됐다. B의 부모는 A와 사이가 안 좋아 B가 사망하자, B의 사진 등 유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A에게서 빼앗아버렸다.

그 이후 B의 부모는 손녀 방문을 법원에 요청했고, A는



신혜원(가정법 전문 변호사)

B의 부모는 아이를 장시간 본 적이 없어 아이가 낯설어하고 B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또한 B의 부모 거주지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B가 사망하기 전 아이가 B의 부모를 방문하고 올 때마다 옷이 더럽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게다가 B의 부모가 아이를 보면 죽은 B를 떠올려 감정적으로 행동할까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방문을 반대했다.

그러나 재판 담당 판사는 자신이 7명의 손주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로서 또 자신이 어렸을 적에 가졌던 조부모에 대한 소중한 기억들에 근거, A가 B의 부모와 손녀딸의 지속적인 관계를 반대하는 것은 부모로서 적합한 행위가 아니라며 B의 부모에게 방문권을 허락했다. 그러자 A는 담당 판사가 자신의 사적인 가치관, 경험, 감정에 치우쳐 엄마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고등 법원에 항소 신청을 했다.

결국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상적인 차원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조부모의 관계를 지지,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자녀가 조부모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울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는 일단은 자녀의 부모가 결정할 일이다. 만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헌법이 보장하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결정권을 법원이 침해할 수 없다.

A가 엄마로서 부적합하지 않는 한, A가 제기한 방문에 대한 우려와 근심은 법원이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담당 판사의 개인 소견에 근거한 방문 허락 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A가 부모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에 그 명령을 파기한다.

법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손주를 빼앗겠다는 협박은 더 이상 통할 리 없지만, 그렇다고 법만 믿고 자녀의 친족 관계유지를 배척하는 것도 이상적이라 할 수는 없겠다. 법이 강조하듯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 어른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이자 평생 과제인 것 같다. ㉠

문의 213-251-540

치료 후
다. 혜택
수 있게
공제하
다.
나 병이
보상을
즉 SDI
택을 받

화로 신
EDD로
정한 후
여부를
해준
후나 병
일 안에

는 한,
서류가
있도록
할 경우

EDD
신청
해준다.
항소하
에 직

1년간
추가
회보장
신청
는 사

나 또
서의
세하